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먹거리 안전 총력”

신동빈 롯데 회장

경기 안성 ‘스마트 팩토리’ 방문
전체 생산공정·현황 실시간 확인
“원자재부터 생산까지 이력추적”



지난 3일, 롯데 신동빈 회장(가운데)이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 스마트팩토리를 찾아 음료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롯데지주

롯데 신동빈 회장은 3일 오후,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의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방문했다. 신 회장은 공장 운영 및 스마트 팩토리 구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체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방문에는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와 롯데칠성음료, 롯데정보통신 담당 임원이 함께했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정보통신의 안성 공장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는 롯데가 그룹 전반에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에 기반한 대표적 혁신 사례다. 2000년 설립된 안성 공장은 롯데칠성의 6개 국내 공장 중 가장 큰 규모(약 4만 평)로, 칠성사이다를 비롯해 탄산, 주

스, 커피 등 롯데칠성의 대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롯데는 안성 공장에 약 1,22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이를 추진해 왔다.

‘스마트 팩토리’는 수요, 생산, 재고, 유통 등 전 과정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공장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지능화된 생산 공장을 뜻한다. 롯

데는 안성 공장을 설비 자동화 및 Big Data, AI 등에 기반한 DT 전략을 통해 미래형 음료 공장이라고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성 공장에는 각 생산 라인별 투입, 주입, 포장, 적재 설비의 상태 및 생산량, 진도율 등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

으로 생산, 품질, 설비 등과 관련된 주요 지표 관리가 한 눈에 가능하고 실시간 제조 이력 추적이 가능한 제조실행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수요 예측, 재고 운영, 생산 계획으로 이어지는 업무 프로세스도 자동화되어 변수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ICC에서 전체 라인의 생산 공정 및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장 내부 설비들을 돌아봤다. 평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신 회장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효과 등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2006년 안성 공장을 첫 방문했던 때와 비교하며 첨단화된 생산 설비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성 스마트 팩토리는 올해 주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만큼 포스트 코로나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룹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먹거리 안전

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 지적하고,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원자재부터 제품 생산까지 제조 이력 추적이 가능한 만큼 식품 안전 대응 체계를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롯데는 올해 안성 공장에 신규 증설되는 라인에도 상기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모델을 활용해 돌발상황을 최소화하고 생산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제품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안성 공장의 제품 창고에 보관, 파킹, 상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물류 자동화가 달성하고, 국내 다른 공장으로도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장을 둘러 본 신동빈 회장은 롯데칠성음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식수를 진행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檢,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팀 수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준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해 왔고 지난해 9월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왔다. 지난달 26일과 29일에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영장이 청구되자 삼성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심의위는 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소집 신청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초강수’를 띄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개혁 취지와 인권보호까지 스스로 견어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독점을 깨뜨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많아지자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라는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진영기자 son@

심의위는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기소의 적절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제도로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폭주, 이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검찰이 ‘외부 통제를 받아 스스로를 묶어매겠다’고 나선 자체 개혁 방안이었다.

애초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팀 내부에 자기확증편향이 생겨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수사의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이어 기소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삼성의 뉴 삼성 전략 차질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소집된 심의위는 구속영장 청구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심의위 판단을 건너뛰기 위해 규정의 맹점을 악용한 편법적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성운 기자 ysw@

금감원 부원장에 김근익·최성일·김도인

〈총괄·경영〉

〈은행·중소서민금융〉

〈자본시장·회계〉

금융위, 임시회서 임원인사 마무리
신임 부원장 임기 오늘부터 3년 간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최성일·김도인 전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지난 3월 부원장보에 이어 이번엔 부원장 자리까지 교체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미뤄졌던 임원 인사가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총괄·경영 부원장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에 최성일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에 김도인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도 거친다.

이번 인사로 금감원 간부진이 새롭게 갖춰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윤석현 금감원장에게 “흔들림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과 현장점검,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등 주어진 임무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차, 우버와 S-A1 상용화 협력

》1면 ‘5년 뒤 드론택시...’서 계속

한국은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개인용 항공체 ‘S-A1’과 함께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의 개념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		
 <p>김근익 부원장 1965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경제학과 - 행시 34회 - 금융위 은행과장 -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p>최성일 부원장 1964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경제학과 - 한국은행 입행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p>김도인 부원장 1963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법대 - 증권감독원 인사 -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 - 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자료/금융감독원

특히 코로나19는 물론 미·중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인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앞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과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김근익 부원장은 행시 34회로 광주 금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금융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과 은행과장,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3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했다.

최성일 부원장은 서울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감원에서 은행감독국장, 감독총괄국장, IT·금융정보보호단장 겸 선임국장,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 등을 맡았다.

김도인 부원장 내정자는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증권감독원 출신으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자산운용검사국장, 기업공시국장,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신임 부원장 임기는 5일부터 3년 간이다. 기존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권인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이날 퇴임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9월 현대차그룹은 UAM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UAM 사업부’를 신설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 항공연구총괄본부 본부장 출신 신재원 박사를 사업부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항공 컨설팅 회사 어센

션 글로벌 대표인 파멜라 콘 상무를 글로벌 전략·운영 담당으로 임명했고, 지난 4월에는 UAM 기체 구조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인재 채용에도 나섰다. 또,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우버와 2028년까지 S-A1를 상용화하기 위해 우버의 항공 택시 사업 추진 조직인 ‘우버 엘리베이트’와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